

화훼농가 수입 매년 감소... 5년새 '반토막'

작년 75억 기록... 2014년 144억보다 47.4% 급락 코로나19로 최악의 사태... 생산·소비 규모 줄어

제주지역 화훼재배농가의 조수입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새 '반토막'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졸업식·입학식·결혼식 등은 물론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훼류 조수입은 75억원으로 전년도의 79억원에 비해 4억원(5%)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절화류 2억원(-2.7%), 분화류 2억원(-23.0%), 구근류 600만원(-7.5%), 관상

수류 3억원(-40%) 등이 줄었다. 화목류가 전년 대비 동일하고, 초화류만 700만원(1%)가량 늘었다.

도내 화훼농가의 조수입은 2014년 144억5900만원에서 매년 줄면서 지난해 75억원으로 5년새 47.4%나 급락했다. 감귤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축산물 등에서의 농가 조수입은 늘었으나 화훼류와 식량작물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2015년 잠미 재배 농가는 자취를 감췄고 국화, 백합, 거베라, 서양란 등 전 품종별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기관과 단체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 플라워 마켓, 로즈데이 운영, 청명화분 전달 캠페인, 1직원 1화분 갖기 운동 등 꽃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장기적 경제침체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소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저가 화훼류 수입도 농가의 판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길이 원천 봉쇄된 데다 각종 기념식이나 축제, 행

사의 잇단 취소로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축산업 조수입은 2조8061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6629억원보다 5.4% 증가했다. 농산물은 1조6538억원으로 0.5% 늘었고, 축산물은 1조1523억원으로 13.1% 증가하며 비슷한 실적을 보였다. 전체 농가소득은 4896만원으로 전국 2위를 보였고, 반면 농가부채는 75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도의 1차산업 분야의 총 예산은 2014년 5954억원에서 지난해 6857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4년 15.1%에서 지난해 11.0%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금리 인하해야”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금융권 고통분담 필요” 도, 협약 금리·지원 확대 검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요자 부담 금리는 1.4%(보증서기준), 1.7%(부동산기준), 2.1%(신용기준) 수준으로 농어촌진흥자금 수요자 부담 금리 0.7%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현길호 위원장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금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수요자 부담 금리 인하를 위한 이차보전 재원이 부족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협약 시 적정 이자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0% 시대에 금융기관에서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협약 금리나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전 자금을 제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등 42개 업종에 2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이태윤기자

서귀포 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비 49억 확보... 2022년 완공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2021년도 생활 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7차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 결과, 이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49억원(총 사업비 305억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149개가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신청했다. 1972년 9월 준공돼 서귀포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귀포 시민회관의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대안시설이 필요하다.

시는 이에 따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체육복합센터는 동흥동 소재 토지에 연면적 6600㎡, 지상4층 규모의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수영장, 다목적 강당, 체력 단련실을 포함한 복합 센터로 건립된다. 완공은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드림타워 현장방문 나선 도의원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장을 찾아 소방·안전시설을 살펴보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추석연휴 쓰레기 바로바로 치운다

수거시간·인력·장비 탄력 운영 도·행정시 종합상황실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연휴를 맞아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동한다.

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3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

월 4일까지 추석연휴 5일간 명절음식과 포장 선물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 발생량 처리를 위해 수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9월 30일과 10월 2~4일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5시~오후 2시에 쓰레기를 수거한다. 쓰레기 발생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는 전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특히, 도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진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청소차량 운행횟수 또한 증회해 발생 쓰레기를

전량 당일 수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행정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행정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관련 생활민원 발생 시 즉시 대처해 나가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종합상황실은 ▷도 710-6031~5 ▷제주시 728-3151~4 ▷서귀포시 760-2931~3, 읍면동에서 각각 운영된다.

도는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 도로변과 공한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한다. 추석 연휴 중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도 전개한다.

백금탁기자

“기준 없다” 종합경기장 운영 관리 도마 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형평성 논란으로 체육단체 입주 못하는 실정”

제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도내 종합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운영 및 관리기준, 장기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체육인들의 요망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 경기 개최를 통해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 체력 향상도 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종합경기장은 유휴 경우오염물질(대기·폐수)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도 전개한다.”



오영희 의원

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종합경기장 운영 및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유휴 사무실에 27단체가 입주 가능하나 자치단체와 관련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사무소, 주차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법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제주시 복지과 등 5개 사무실이 무상임대, 외부업체 1개 사무실이 임대돼 있고, 나머지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임대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입주된 단체들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기준 없이 임대되고 있다”면서 운영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